




Vol. 3

의료인문 테마스쿨 보도본부



강유정, 남소영, 박명훈.
박여진, 이호성, 정지환



Contents

랑봉

세상을 보는 눈 : 아름다움에 대하여 - 강유정, 박여진

일본 갈 뻘했조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 - 박명훈

이상과 과실 사이

법정에 선 의사 - 남소영

맺는 글

랑봉

세상을 보는 눈 : 아름다움에 대하여

박여진 기자

우리말 '아름다움'의 어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다. 첫 번째로, '아름다움'은 '얹음다움'에서 나왔다고 한다. 아름다움이란 상처가 피워낸 꽃이며, 상처를 알고 슬픔을 삭인 사람만이 아름다움을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아름다움은 포옹하다를 의미하는 '안다'에서 나왔다고 한다. '안다'에 접미사 '음'이 붙어서 '안음'이라는 말이 생겼고, 이것이 다시 운율적 매끄러움을 위해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탄생했다는 주장이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해석이다. 세 번째, '아름답다'는 '알밤답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알밤이 밤송이, 밤톨 껍질, 보닛을 벗겨내야 드러나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허식과 치장을 걷어내고 드러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다. 네 번째, '아름답다'의 의미는 '알다(知)'라는 동사 어간에 접미사 '음'이 붙고, 접미사 '답다'가 붙어서 생겼다는 것이다. 즉, 아는(知)것이 아름다움의 본질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럼 당신은 아름다운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 들어도,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나름의 정의를 내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애매모호하기도 하며 다양한 견해가 있는 '아름다움'에 대하여 알아가려는 조가 있어 보도본부에서 취재를 나섰다.

이용직 교수님이 지도하시며 권영기, 배기훈, 백상현, 신대희, 한수인 다섯 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랑봉조는 의료인문 테마스쿨 기간 동안 '아름다움'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의견과 서로의 고민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반에는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알아갔으나 점점 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하고 의견을 나눴고, 나중엔 인간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까지 확장되었다고 한다. 미적 기준이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즉 가치관과도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생각과 더불어 교수님의 멘토링이 필수적인 활동이었다고 한다. 보도본부 기자는 학생들의 토론 과정을 지켜보았고, 토론에 대한 각 조원들의 의견을 더 자세히 들어보고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교수님과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 학생들

Q. 보도본부 기자들이 초반에 취재를 갔을 때 아직 토론식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활동을 하며 토론식 활동에 대하여 바뀐 점이 있는가?

영기 : 초반에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서 답이 Yes or No로 많이 같렸지만, 점차 토론이 진행되면서 자유롭게 보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와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움, 아름다운 가치관을 이야기하였다.

기훈 : 식당에서 만남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제대로 얘기를 못 나눠서 보도부에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다. 평소에도 서로가 지닌 아름다움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하며 사고를 확장시켰다. 다만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눌지 결정하는 게 어려웠던 기억이 난다.

상현 : 그 당시에는 조원들과 나 자신이 아름다움에 대한 탐구라고 해서 그 주제 자체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아름다움이라는 가치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곧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아름다움이라는 가치가 외적 아름다움만을 뜻한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아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주제와 토론에 대해 어색하지 않다.

대희 : 솔직히 말해서 진행방식에 대해선 취재 전후로 바뀐 점이 크게 없는 것 같다.

수인 : 처음에는 추상적인 주제에 그치다가,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안해주셨고, 더 구체적이고 마음에 드는 주제를 고를 수 있어서 점점 활발하게 토의할 수 있었다.

Q.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 것이 있는가?

영기 : 의료인문테마스쿨 수업을 듣기 전까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 어느 정도는 속물적인 느낌이 난다고 많이 생각했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자신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고 그 가치관에 문제가 없다면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기훈 : 크게 바뀐 것 같진 않다. 바뀌었다기 보단 기존의 가치관을 확장시킨 거라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생각하는 귀한 경험들을 했다.

상현 : 위에 서술했듯이, 아름다움을 외적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활동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교수님이 우리를 미술관이나 이런 곳에 데려가실 줄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상 아름다움은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포괄적이었으며, 최종 정착지는 우리의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대희 : 이전에는 단순히 오감을 충족시키는 존재라는 개념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자체가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수인 : 아름다움에 대해 처음에 생각했던 주제는 피상적인 것에 그쳤지만, 점점 앞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

Q.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영기 :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

기훈 :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상현 :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곧 조화이다. 모든 것이 그 자리에 그 자신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조화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 주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희생과 성찰의 과정이 조화를 더욱 아름답게 한다고 생각한다.

대희 :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한 노력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수인 : 아름다움은 사랑이다. 남들을 배려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한다.



Q.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인가?

영기 :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사람은 행동에서 나오는 것인데 나는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에 행동으로까지 옮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훈 : 아직은 자신 있게 답하긴 힘들지만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상현 :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그저 나의 관점일 뿐이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아름다움을 본다면 한 가지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아직 나도 나의 관점에서는 아름다움을 완벽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름다운 면이 아주 없진 않길 기대해본다.

대희 : 나의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하는 중이기에 점점 아름다워져 간다고 생각 한다^^.

수인 : 아직 완성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많은 독서와 자기성찰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조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본 지금, 당신은 '아름다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인가?

일본 갈 뻘했조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

박명훈 기자

많은 동기들이 방학이 되면 학기 중에 지고 있던 학업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재충전을 위해 해외여행을 간다. 유럽, 미국, 동남아 등 많은 여행지가 있지만 매년 빠지지 않고 누군가는 방문하는 나라가 있다. 이웃나라 일본이다. 일본은 우리와 같은 문화권에 속해 비슷한 면이 많지만, 옆나라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점도 많다.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나라이며, 과거의 만행을 인정하지 않아 논란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이런 일본에 대해 알아보는 '일본갈뻘했조'의 활동을 담아보았다.



취재를 시작하며 찍은 '일본갈뻘했조'의 모습

의료 인문 테마스쿨이 시작되고 조를 정할 때 교수님별로 주제 제목이 쓰여 있었는데 그 중에 김홍태 교수님의 테마의 주제 제목이 '먼 나라 이웃나라'였다. 처음에 그걸 보고 어릴 때 읽던 만화책인 '먼 나라 이웃나라'가 생각났다. 조가 전부 정해지고 나서 조원들에게 무슨 활동을 하는지 물어보았는데 일본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을 한다고 하였다.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멀리 느껴지는 나라이지만, 그와 동시에 바다 건너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며 교류가 많아 친숙하기도 한 나라 일본. 이보다 일본을 더 잘 표현할 말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기사 제목도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로 정하게 되었다. 김홍태 교수님께서서는 일본의 의과대학에서 조교생활을 하셨고, 최근에는 일본의 교수님들과 공동연구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셨다. 이 때문에 일본이 친숙하게 느껴져 학생들과 일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이 주제를 의료인문 테마스쿨 활동으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동성로에 있는 일본교류카페 '하루'를 방문한 '일본갈뻔 했조'의 모습

보도본부의 마지막 취재로 찾게 된 '일본갈뻔 했조'는 그 동안 조원들의 일본여행 경험과 주제에 대한 생각나누기, 일본의 문화, 역사, 먹거리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하였다고 얘기해 주었다. 또 일본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시내에 있는 일본교류카페인 하루에 방문하여 일본에 대해 더 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주제 선정은 매주 활동이 끝날 때 다음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 알아볼지 조원들이 이야기를 나누어서 정하고, 이에 대해 각자 조사를 해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활동이 진행된다고 한다.

취재를 위해 방문한 날은 일본의 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조원들은 제각기 일본의 의료에 대해 관심 있는 분야를 조사해서 다른 조원들에게 소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나라와 다르고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본의사국가시험, 일본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일본의 전문의 제도 등 많은 주제가 나왔지만 그 중에서 자치시대 제도와 일본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눈길이 갔다. 의과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등록금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줘서 학생들이 저렴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는 대신, 졸업 후 해당 지자체에서

몇 년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제도이다. 학생은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자체는 부족한 의료 인력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미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일본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술기 실습이 우리보다 더 많고 예과 1학년 때부터 레지던트까지 폭넓게 들을 수 있다는 점이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해당 술기에 대해 숙련이 되었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술기를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위해서 임상 술기 실습실이 운영되고 있어 본과4학년을 제외한 다른 학년들은 술기 실습에 참여하기 힘들다. 수업을 하고 바로 해당 내용의 술기 실습을 해 볼 수 있고, 학생이 관심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잘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제도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다.

전문의 시험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점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레지던트 과정을 밟다가 중간에 다른 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다 생각했지만, 전문의 시험을 치지 않는데 그만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었다.

일본의 의료 외에도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수님께서 일본에서 겪으셨던 일을 듣다보니 어느새 활동을 마칠 시간이 되었다. 사용했던 PBL실을 정리하며 이번 주 활동이 끝났고, 동시에 취재도 마무리 되었다. 평소 일본에 대해 알던 것과 다른 새로운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어 의미 있었고, 재미있는 활동이었다. 더불어 학업에서 벗어나 공부가 아닌 다른 주제로 동기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이상과 과실 사이

법정에 선 의사

남소영 기자

최근, 의사의 과실의 법적 처리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달, 2013년에 일어난 8세 남자아이의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하여 결국 환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사 3명이 금고형을, 한 명은 실형을 받게 되어 전 국민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최근 대리수술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뉴스에 나오면서 웨도우 닥터에 대한 문제가 큰 이슈를 끌고 있다.

이런 의사의 과실이 크게 이슈거리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할까? 이런 어렵다면 어렵고, 민감하다면 민감한 문제를 파고든 조가 바로 조창호 교수님이 이끄는 <이상과 과실 사이>조이다. 조창호 교수님, 공덕규 학생, 김송건 학생, 손창수 학생으로 이루어진 <이상과 과실 사이>조는 매주 교수님이 가져온 의사와 환자의 법적 분쟁의 사례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형식으로 의사와 환자의 법적 분쟁에 대해 수업해 왔다.

이번 시간 조창호 교수님이 가져온 사례는 A 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샘플의 라벨링 과정에서 환자의 이름이 바뀐 사례이다. A 병원에서 침윤성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이 환자는 이후 재검을 위해 B 병원에 이름이 바뀐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들고 갔고, 새로이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B 병원은 그대로 침윤성 유방암으로 진단하여 우측 유방 절제술과 임파선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수술로 절제한 유방 조직의 조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A 병원으로부터 조직검사 슬라이드 및 파라핀 블록을 대출받아 다시 암세포 검출 여부를 재확인하였을 때, A 병원에서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이 환자의 라벨을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래 이 환자의 병변은 양성종양으로 절제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잠시 사례를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 주어진 뒤, 토론이 진행되었다.

조창호 교수님 : 자, 이걸 결국 누구의 잘못일까? 두 병원 모두의 잘못일까?

공덕규 학생 : B 병원이 억울하죠. 보통 슬라이드나 환자 차트를 받으면 재검하지 않고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하는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A 병원의 잘못을 생각할 때도 이 일이 병리과 의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직원의 잘못인지 그것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창수 학생 : B 병원에 갔을 때 새롭게 검사를 다시 할 생각으로 환자가 병원을 찾은 건지 그걸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덕규 학생 : A 병원에서 의혹이 있어서 재검을 위해 B 병원을 갔는데 단순한 촉진만 하고 절제했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A 병원에서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러 갔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면 B 병원에 과실이 없고, 환자가 병에 대한 의심을 갖고 갔으면 B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창호 교수님 : 환자는 재검할 생각으로 B 병원을 간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다른 병원을 찾고 싶어서 갔다고 생각하자.

손창수 학생 : 교수님, MRI만으로는 양성. 악성 판단이 어렵나요?

교수님 : MRI나 초음파로 대개는 대충 구분이 가능하지.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초음파나 영상을 찍었는데 환자는 실제로 양성이었지만 악성 의심 소견이 보였었지.

김송건 학생 : 그렇다면 조직검사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이 Routine이고... 초음파나 영상을 다시 찍었을 때 악성소견이 의심되었으므로 조직검사를 하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B 병원은 A 병원에서 가져온 조직검사 자료를 그냥 믿은 것이므로 B 병원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 병원 입장에서 수술하는 것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창호 교수님 : 그러면 정리해보도록 하자.

세 학생의 결론은 공통적으로 슬라이드를 만들 때 환자의 이름을 바꿔 붙인 A 병원은 잘못이 있지만 그 슬라이드를 그대로 받아 진단한 B 병원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었다. 교수님이 토론이 끝난 후 나눠주신 마지막 자료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A 병원에서 환자에게 손해비용을 배상하고, B 병원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내려졌다. 조원들이 생각한 것과 비슷하게 판결이 내려졌음을 알 수 있었고 조원들은 그럼 그렇지, 하는 뿌듯한 표정으로 판결에 납득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A 병원'과 'B 병원'으로 가려져 있던 두 대학병원이 대법원 판결문에서 이름이 그대로 드러나자 다들 놀라다는 반응을 보였다. 두 대학병원 모두 대한민국 유수의 대학병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나 유명한 병원에서도 사소한 실수로 인해 환자의 인생이 결정된 것에 대해 모두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반응도 보였다.

다음은 교수님과 조원들과의 인터뷰이다.

남소영 기자 : 교수님이 이 주제로 수업을 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창호 교수님 : 환자와 의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일은 이제 의사가 되고 나면 아주 적지요. 그런 상황에서 환자의 생각은 어떤지,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떤지, 지금 의대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의료진이 되었을 때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고 학생 여러분도 환자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수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남소영 기자 : 조원들은 매주 여러 사례를 보았을 것 같은데요. 조장인 손창수 학생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무엇인가요?

손창수 학생 : 음... 다 기억에 남긴 했지만 이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수혈을 거부해서 너무 상황이 안 좋아졌고, 가족 간의 상의 하에 수혈을 했으나 수혈을 늦게 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 가족들이 왜 수혈을 빨리 하지 않았느냐고 소송을 건 사례가 있었어요. 그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토론할 때도 제일 재미있었구요.

남소영 기자 : 공덕규 학생과 김송건 학생은 이번 의료인문테마스쿨 수업을 하며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공덕규 학생 : 인문학 수업은 수동적으로 듣는 수업이 아니라 자신이 참여하면서 생각을 정리해서 자신만의 인문학을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흥미로운 주제로 한 학기동안 수업해주신 조창호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수업을 만들어주신 박윤엽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송건 학생 : 수업에서 여러 의료분쟁 사례를 매주 다뤄 왔는데, 무엇보다 환자와 의사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의사가 된다면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일이 적다고 하셨는데, 이런 수업을 통해 환자를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조창호 교수님께서서는 본인이 의사로서 환자에게 원망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셨다. 또한 시대가 예전과 달라져서 의사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쉬쉬하며 덮을 수 있던 시절은 지났다면서, 의사로서 환자와의 관계, 즉 Rapport를 중요시하고 언제나 <절대적인 선>을 함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남기셨다.



맺는 글

벌써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한 송이 한 송이 내릴 때는 눈 치채지 못하지만, 잠시 숨을 돌리고 있으면 어느새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는 눈송이처럼, 저희들도 힘겹게 한 발자국씩 내딛는 사이 훌쩍 성장했습니다.

의료인문테마스쿨도 이와 같은 과목이었습니다. 한 번 한 번의 활동으로 인생이 소설처럼 바뀌는 일은 없었지만, 저희의 생각을 조금씩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어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소중함을, 누군가에게는 살아가는 자세를, 누군가에게는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변화들이 소설처럼 무언가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지금의 작은 날갯짓들이 커다란 태풍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개개인의 인생일 수도 있고, 커다란 반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의료인문테마스쿨이 저희에게 다양한 색깔로 가득한 추억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조원들, 동기들, 모두와 함께 한 소중한 시간은 의사가 되어서도 영원히 예쁜 기억 한 조각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11-06

의료인문테마스쿨 보도본부 이호성



의료인문 테마스쿨 보도본부



대구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16학번들의 이야기